

본문 : 요한복음 15 장 1-10 절

제목 : 나는 참 포도나무다

### 1.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하신 말씀으로 주석가들은 이해합니다. 수난 주간의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목요일에 아마도 포도원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흩어지려 하고 균열의 조짐이 보이는 제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갈릴리의 방랑 예언자였던 예수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그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겠죠.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제자마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흩어질 수 밖에 없는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나의 길을 같이 가자. 나를 떠나지 말거라”라는 메시지가 포도나무 비유인 본문 말씀에 숨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이 문장이 Ego eimi 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문법에서는 굳이 인칭대명사를 쓰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라는 뜻의 인칭대명사 Ego 없이 eimi 만 쓰더라도 I am 이 되는데, Ego 를 굳이 써줄 때는 차이를 강조할 때입니다. Ego 가 추가 됨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바로 ~이다”라는 차이를 강조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Ego eimi 로 시작되는 구문이 총 일곱 번 쓰입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일곱번 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항상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문장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80 편 8 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 오셔서, 뭇 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포도나무를 뽑아

와서 심으셨다고 하는데 포도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 같나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 장 21 절에서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네가 엉뚱하게 들포도 나무로 바뀌었느냐?” 이스라엘은 좋은 포도나무 종자였는데 엉뚱하게 들포도 나무를 맺게 되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예언자의 말입니다.

또 한 구절은 이사야 5 장 1-7 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여 그들의 죄악을 꼬집어 고발합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이 문장에서 말장난(word play)를 사용합니다. 7 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선한 일(mishpat)**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mishpach)**뿐이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옳은 일(tsedakah)**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tseaqah)**뿐이다.” 선한 일은 히브리 말로 Mishpat 이구요, 옳은 일은 Tsedakah 입니다. 살육을 뜻하는 히브리 말은 ‘Mishpach’이구요, 울부짖음을 뜻하는 말은 ‘Tseaqah’입니다. 미쉬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미쉬파하를 맺었고, 쯤다카를 기대했는데 쯤아카를 맺었다라고 이사야가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 2. 포도 열매, 미쉬파트와 쯤다카

이 세 구절의 구약성경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포도나무에서 맺혀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서 맺혀야 할 포도 열매는 미쉬파트와 쯤다카입니다. 우리 말로는 공평과 정의로 또는 의와 공도로 번역되는 히브리 말입니다. 미쉬파트는 사법적 정의로서 공평을 뜻하고 쯤다카는 분배적 정의로서 자비를 뜻한다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공평무상한 공동체를 기대했는데 강자가 약자를 압제하고 힘 센 자들이 경쟁에서 밀려난 자들을 억누르고 비인간화 시키는 균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악이지요. 쯤다카를 기대했다는 것은 신적인 친절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신적인 친절이란 도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불을 지펴서 밥을 했잖아요. 옆 집 굴뚝에서 삼일 썰 연기가 나지 않는다 합시다. 삼일 썰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보고 지나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큰 흠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적 자비인 쯤다카는 삼일 썰 연기가 나지 않는 집에 노크하여 무슨 일 있는 지 묻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연기가 왜 안 나는지 물어보고 책임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언약공동체  
 결속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베푸는 친절과 사랑의 행위가  
 쯤다카입니다. 그런데 쯤아카는 못 살겠다는 아우성입니다. 이웃이 나를 못 살게 굴 때  
 소리 내어 울부짖는 것이 쯤아카입니다. 공평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은 더이상 언약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능을 잃어 버리고 무너져버린 공동체를  
 가리켜 예언자들은 들포도나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하는 말은, 들포도 나무와 대척점을 이루는 참 포도나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이해했던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곧 지게 되실 십자가를 통해 꿈꾸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곧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들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기둥이 된 살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대한 폭압적인  
 관료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누지 않고, 힘센 자와 약한 자가  
 경쟁하지 않고 상생하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왕도 필요 없고  
 상비군도 필요 없고 거대한 관료조직도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율적 시민들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기는 공평과 정의로 돌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깊은 뜻이 이 문장 안에 녹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 3. 내 아버지는 농부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데,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농부셨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농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헬라말로 농부는 Georgos 입니다. Geo 또는  
 Gea 는 땅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땅을 돌보고 가꾸는 사람이 Georgos 입니다. 영어  
 이름 중에 George 가 농부라는 뜻입니다. 농부가 가진 가장 큰 기대감은 수확입니다.  
 농부의 삶의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많이 거두어 들이는 데 있습니다. 농부이신 부모님이  
 실망하시던 때는 곡식이나 과일 채소들이 병충해나 자연 재해로 수확이 줄어들었을 때  
 였습니다. 농부는 어떻게든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땅을 기경하고,  
 김을 매고, 가지를 잘라 주는 모든 행위는 결국 많은 열매를 거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2 절 말씀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 절의  
 ‘손질하다’와 3 절의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Kathairo 라는  
 말인데요 Clean, clear, pure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에 전정가위를 들고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가 쓸 데 없이 뺀어 가면 영양분을 열매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덩굴 식물이라 덩굴이 상상 외로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가지치기하고 덩굴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실 때도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 내면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 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니 아프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싫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정전가위를 들이 밀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실과 시련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위질일 수도 있습니다.

#### 4. 거룩한 양조장

왜 하나님은 포도를 수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포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번에도 이에 관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5 장 6 절 말씀입니다. “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 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세계 만민을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잘 익은 포도주가 마련된 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잔치 상에는 흥어가 빠지면 안되고, 경상도 잔치상에는 문어가 빠지면 안 된다고 하지요. 이스라엘의 잔치상에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숙성된 포도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이집트에서 옮겨 심어온 이유가 여기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만민을 기쁨의 잔치에 초청하여 숙성된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 서로의 적대감이 사라지고, 형제우애적 사랑이 커져가도록 우리를 몰아가는 기쁨의 포도주,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포도주에 취하면, 너와 나를 갈라 놓았던 민족적인 아이덴티티도 다 사라져서 서로가 형제 자매의 우애를 나누게 됩니다. 골육상잔과 타자에 대한 압제가 사라지는 잔치공동체가 포도주를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번째 이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이지요. 혼인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지요.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이사야 예언서와 연결되어 포도주 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 바라시는 기대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양조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 장에 보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술취한 결과와 비슷하게 묘사됩니다. 술 취했을 때 나타는 현상이 성령충만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교회는 공평과 정의의 포도주를 공급하는 거룩한 양조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흥이 돋궈지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이유 없이 명랑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가졌던 적대감을 무장해제 시키고 탐욕을 쫓아 가던 긴장된 삶이 느슨해 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가진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한 상태가 비정상임을 알게 됩니다. 술취한 사람처럼 착해지고 적개심을 다 허물어 버리고 어느 누구와도 친밀해지는 개방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다니는 맛이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거룩한 포도주를 맛보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 5. 내 안에 머물라

예수님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이득일까요 몰락해 가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이득이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죠? 망해가는 사람과 인생이 엮이면 자신도 망해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망하셨다 생각하고 엮이면 안 되겠다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말은 예수 믿고 손해 보는 삶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된 가지이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힘이 기독교의 힘입니다. 예수를 따르면 죽는 것을 알고도 예수를 따랐던 그 생명력이 초기 기독교를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열매가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답기에 도저히 예수를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욕을 먹는데도 교회가 희망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고 함께 십자가 지게 되는 것을 알고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예수 안에 머물고자 하는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희망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오면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닦았습니까? 교회는 거대한 폭압적 관료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존재합니다.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는 영적인 자율성을 가진 순결한 사람들,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끝나고 의자 치우자고 관료적인 압제를 하지 않더라도 의자를 알아서 치웁니다. 십일조 하지 않는다고 벌점 매기거나 압력을 넣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2 천년 동안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유지되는 기관입니다. 그 어느 기관도 이렇게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기관은 없습니다. 이 조직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확신에서 시작된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교회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중국의 교회는 모택동이 인민공사를 통해 대약진 운동으로 2 천 300 만명을 죽일 때도 살아 남았습니다. 문화혁명으로 10 년 동안 교회를 말살시키는 와중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진심은 어떤 폭력이나 고문이나 탱크로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포도주로 거룩한 양조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 예수 믿고 손해 봄을 알고도 예수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한,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무십시오.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예수께서 꿈꾸시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더 단단히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책임있는 행동을 통해 복된 삶을 시범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새 포도주에 취한 상태를 시범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지내십시오.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목장 모임에 참석하고, 신령한 교제 모임에 참석함을 통해 예수 안에 덩달아 붙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메시지를 한 마디로 정리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나와 깊은 친교와 사귀를 나누면, 너희도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라오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